

19세기 사찬사서(私撰史書) 속의 예문지(藝文志)의 기술 방식과 특징*

김려화**

- I. 서론
- II. 새로운 분류체계와 형성원인
- III. 시문(詩文)의 수록과 편찬목적
- IV. 자주적인 동인(東人)의 역사 편찬의식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19세기에 편찬된 조선의 사찬사서(私撰史書)인 『해동역사(海東繹史)』, 『동국통지(東國通志)』, 『동국십지(東國十志)』 속의 예문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기술 방식의 측면에서 그것의 전반적인 특징을 고찰하고 이 예문지들이 지닌 특징과 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원래 예문지(藝文志)는 중국 전통 역사서에서 규범화된 일정한 형식대로 편찬해오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19세기에 편찬된 이 세 예문지들은 전통적인 예문지와 비교할 때 분류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동역사』 「예문지」, 『동국통지』 「예문지」, 『동국십지』 「예문지」의 분류 체계를 각각 살펴본 결과, 『해동역사』 「예문지」는 독특한 분류체계를 구축하였고 『동국통지』 「예문지」와 『동국십지』 「예문지」는 개수된 분류체계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19세기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의 특징적인 서술 방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새로운 분류체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 SJ-TSZY2017-001

** 중국광둥외어외무대학 남국상대학 강사

새로운 분류체계가 나타난 주요 원인은 조선에서 17세기부터 유행했던 유서(類書)의 영향임을 밝혔다. 조선후기에 편찬한 유서 가운데 서목 성격을 띠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19세기 사찬사서 속 예문지의 초기형태로 볼 수 있다.

한편 전통적인 예문지에서는 시문을 수록하지 않은 것과 달리 『해동역사』 『예문지』, 『동국통지』 『예문지』, 『동국십지』 『예문지』에는 한시, 시가 그리고 산문이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다. 예문지에 시문을 수록한 것은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예문지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하면 문화사 서술을 풍부하게 하려는 편찬목적 때문에 시문을 예문지에 수록한 것이다. 풍부한 내용을 자랑할 수 있는 예문지는 곧 한 시대의 성대한 문물에 대한 문서 증빙이다. 그리고 시문 수록을 통해 편찬자들이 문학을 중시하여 ‘시와 문장으로 역사서술을 보충하려고(以詩文補史)’ 한 편찬의식도 엿볼 수 있었다.

새로운 예문지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또 시문을 수록했다는 것은 편찬자들이 자국의 역사를 자주적(自主的)이고 체계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해동역사』의 편찬자 한치윤(韓致胤), 『동국통지』의 편찬자 박주종(朴周鍾), 『동국십지』의 편찬자 배상현(裴象鉉)은 모두 예문지를 통해 자국의 문화 역사를 정리하고 자국 문물의 성대함을 밝히며 자국의 역사를 재인식, 재평가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자주적인 역사 편찬의식으로 자국사의 독립성을 추구하려는 이들의 중국의 문물제도에서 탈피하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비록 자국사의 독립성을 추구하였지만 중국 문물과의 깊은 연원으로 인해 조선의 예문지에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빠질 수가 없었고 편찬자들은 중국 서적을 독립된 항목으로 수록하거나 자연스럽게 조선의 서적과 함께 기록하였다. 그 결과, 조선후기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는 문화교류사를 기록하는 역사서술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는 편찬자들이 자국의 문화 역사를 확립시키려는 결과물인 것은 분명하다.

핵심어: 『海東釋史』 『藝文志』, 『東國通志』 『藝文志』, 『東國十志』 『藝文志』, 분류체계, 시문(詩文) 수록, 편찬의식

1. 서론

본고는 19세기에 편찬된 조선의 사찬사서(私撰史書) 속의 예문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기술 방식 측면에서 그것의 전반적인 특징을 고찰하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러한 예문지 특징들이 지닌 의미도 밝혀 보도록 하겠다.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조선에서는 사찬사서가 지속적으로 편찬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사찬사서’는 개인들에 의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역사 기록물을 가리킨다. 사찬사서는 국가의 통치를 위해 국가 기관에서 편찬한 관찬사서(官撰史書)와 대칭되는 용어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후기에 편찬된 사찬사서는 약 70종에 이른다고 한다.¹⁾ 분량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사찬사서들이 한 두 권 정도의 분량으로 일정한 역사적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나 20-30권의 분량으로 구성된 사찬사서도 몇 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밖에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역사서도 몇 종이 있다.²⁾ 이 시기의 사찬사서 중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은 한치윤(韓致胤, 1765~1814)이 편찬한 85권 분량의 『해동역사(海東譯史)』이다. 역사서의 분량은 그가 기록한 역사적 내용, 편찬자의 편찬목적이나 역사관(歷史觀) 등 요소와 관련이 있으며 그 분량은 또한 해당 저술의 분류체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방대한 역사서일 수록 엄밀한 분류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법이다.

예문지(藝文志)는 곧 사지서목(史志書目)을 가리킨다. 정사(正史) 속의 예문지는 보통 이전에 있었던 사료의 명칭을 수록하고 해당 사서(史書)가 편찬된 시기에 존재했던 서적 이름을 기재하는 역할을 해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예문지 편찬의 역사는 서한(西漢) 시대 유향(劉向, B.C.77~B.C.7)의 『별록(別錄)』과 그의 아들 유흠(劉歆, B.C.50~B.C.23)이 편찬한 『칠략(七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십사사(二十四史)’ 가운데 예문지를 편찬

1) 김려화, 『『해동역사』 『예문지』의 문헌학적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2~15면)에 서는 한영우의 『朝鮮後期史學史研究』(一志社, 1989)를 비롯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조선의 개개인이 편찬한 역사서 66종을 정리한 바 있다.

2) 洪汝河(1620~1674)의 『彙纂麗史』 48권, 李時善(1625~1715)의 『歷代史選』 35권, 柳光翼(1713~1780)의 『東史編年』 84권, 李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 59권, 韓致胤의 『海東譯史』 85권, 李恒老(1792~1868)의 『宋元華東史合編綱目』 33권, 沈大允(1806~1872)의 『全史』 58책, 朴周大(1836~1912)의 『歷代史統』 등은 모두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된 사찬사서들이다.

하여 수록한 사서는 전체 사서의 4분의 1 정도이다. 예문지가 들어가 있는 정사는 『한서(漢書)』, 『수서(隋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송사(宋史)』, 『명사(明史)』 여섯 종이다. 이들 예문지는 고급의 문헌 자료를 망라하여 기록했으므로 문헌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17세기 초기부터 19세기 말기까지 이르는 조선후기 사찬사서들의 분량, 그리고 예문지의 내용과 특징을 종합해보면 이 시기에 편찬된 사찬사서 가운데 예문지가 들어 있는 저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갖춘 역사서만이 예문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짧은 편폭으로 구성된 역사서에는 전형적인 예문지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본문에서는 우선 30권 이상으로 구성된 사찬사서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치윤의 『해동역사』, 박주종(朴周鍾, 1813~1887)의 『동국통지(東國通志)』, 배상현(裴象鉉, 1814~1884)의 『동국십지(東國十志)』 이 세 역사서에 예문지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침 이 세 가지 역사 저술은 모두 19세기에 편성된 사찬사서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약 70종에 이르는 역사저술 가운데서 3종에만 예문지가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개인이 편찬한 역사서’라는 점에서만 볼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분량 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예문지가 들어 있는 이 세 역사서는 모두 적지 않은 분량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문지 편입이 가능했던 것이다. 저술 분량이 예문지 편찬의 객관적 조건이라면 편찬자는 예문지 편찬의 주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찬사서의 예문지 편찬에 있어서 편찬자의 개인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즉 편찬자가 예문지를 극히 중요하게 간주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개인에게는 예문지 편찬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료 수집에 무한한 공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그것에 따라 편찬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헌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예문지를 편찬하려면 편찬자가 상당히 높은 지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세기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는 귀중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편찬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문지를 편찬하였는지, 이러한 예문지가 또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밝히면 한자문화권에서의 예문지의 발전 양상을 정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사찬사서의 형식적 특징과 편찬의식에도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이 시기 지식인들이 자국문화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 인식의 중요한 일면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에 편찬된 이 세 가지 역사서 속의 ‘예문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본문의 논리구성과 결론 도출에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민태희는 박주종의 생애와 학술경향에 대해 고찰하고 『동국통지』의 내용과 그 속의 예문지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³⁾ 그리고 진나영과 송일기는 『동국십지』 「예문지」의 분류상황과 수록내용을 고찰하였다.⁴⁾ 또한 필자가 역시 『해동역사』 「예문지」에 대해 문헌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바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 『해동역사』 「예문지」의 분류방식과 구체적인 편찬방법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⁵⁾ 이와 같은 연구 성과에 힘입어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 예문지의 기술방식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그것의 전반적인 특징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다.

II. 새로운 분류체계와 형성 원인

주지하다시피 예문지 편찬의 주요 목적은 문헌 자료의 서명이나 제목을 수록하는 것이다. 방대한 문헌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록하기 위해서는 ‘분류’가 필수적인 기초 작업이 된다. 일정한 분류 체제를 마련한 다음에 문헌들을 해당 분류 영역으로 귀납하여 기록하면 최종적으로 한 부(部)의 예문지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방대한 문헌들을 체계적인 분류 방식에 따라 한 곳에 수록했다는 특성 때문에 예문지는 일반 목록서와 함께 목록학의 주 연구대상이 되었다.

분류작업이 문헌 편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선학들이

3) 민태희, 『『동국통지』 예문지 연구』, 『서지학연구』 제5·6집, 한국서지학회, 1996.

4) 진나영·송일기, 『『동국십지』 「예문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집, 2011.

5) 김려화, 앞의 논문.

끊임없이 강조한 바 있다.⁶⁾ 특히 예문지 같은 경우, 수록 문헌의 분류 방식은 나름의 장법(章法)을 구비하고 일정한 체제를 갖추어야 유효한 문헌학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학술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요컨대 분류 체제의 구비는 마치 남송 학자 정초가 “서적 가운데 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은 유례의 법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까닭이다(書籍之亡者, 由類例之法不分也)”⁷⁾라고 한 것처럼 예문지의 성패에 관건이 되는 편찬 요소이다. 물론 예문지의 편찬은 자료의 수집, 교감, 감별 등 기본 작업의 선행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전통 예문지의 분류 체제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 『한서』, 『수서』, 『구당서』, 『신당서』, 『송서』, 『명서』 여섯 부의 정사 속의 예문지는 대부분 경사자집(經史子集)의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에 따라 1차적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1차 분류 층위 아래에 2차적인 분류 층위를 설정하였다. 후에 나온 『신당서』 「예문지」는 전대의 예문지나 경적지보다 분류 층위를 한 단계 더 설정하였다. 즉 ‘부류(部類)>유목(類目)>자목(子目)’과 같은 3단계 분류 구조를 설정하였다. 그 후에 나온 『송사』의 「예문지」와 『명사』의 「예문지」 역시 3단계 분류 구조를 설정하였다. 사실 청대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보사 예문지(補史藝文志)가 편찬되었는데 대부분 정사 예문지에 따라 경사자집으로 시작한 3개의 분류 층위를 두었다. 이와 같은 예문지 분류체계는 발전할수록 정형화되어 갔는데 특히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의 편찬에서 상당히 완성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조선에서 편찬된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에서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예문지의 분류 방식과 다른 점이 발견된다. 우선 『해동역사』 「예문지」, 『동국통지』 「예문지」, 『동국십지』 「예문지」의 분류 체제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동역사』는 한치운이 1799년에 연행을 다녀온 후 편찬한 조선역사서이다. 85권으로 구성된 『해동역사』는⁸⁾ 이긍익(李肯翊, 1736~1806)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동사강목(東史綱目)』과

6) 이 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논의로는 중국 송나라 때 정초(鄭樵; 1104~1162)의 「책을 편찬할 때 반드시 유례에 엄격해야 함을 논하다(編書必謹類例論)」를 들 수 있다.

7) 『編書必謹類例論』, 『校讎略』, 『通志』 권71 (淸文淵閣四庫全書本).

8) 한치운이 생전에 『해동역사』의 원편(原編) 70권을 편찬하였고 그의 사후 조카인 한진서(韓鎭書, 1777~?)가 『해동역사』의 속편(續編) 15권을 편찬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은 총 85권이다.

함께 ‘조선후기 삼대사서(三大史書)’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해동역사』는 조선후기 사찬사서 가운데 분량이 가장 많은 역사 저술이다. 그리고 이 책에 들어 있는 예문지는 전체 85권에서 18권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⁹⁾ 『해동역사』 『예문지』의 분류 상황을 ‘부류>유목>자목’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部類> 類目> 子目)

經籍> 總論

 本國書目> 經, 史, 子, 集

 中國書目> 經, 史, 子, 集, 東國記事

書法, 碑刻, 畫

本國詩> 箕子朝鮮, 高句麗, 新羅, 高麗, 本朝 (上), 本朝 (下)

中國詩> 贈和本國人, 送使本國, 紀事, 題詠, 詠物

本國文> 事大表疏, 與隣國書, 牒, 狀, 呈文, 書, 記, 序, 銘

中國文> 詔, 制, 勅, 附 唐征高麗詔, 表, 疏, 狀, 議, 奏, 啓, 論, 頌, 序, 記, 銘,
 奉使錄

雜綴

『해동역사』 『예문지』의 분류체계를 전통적인 예문지의 분류 체제에 비추어 보면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 예문지의 분류 층위는 전통적인 예문지와 같이 부류, 유목, 자목 3단계 구조로 설정되어 있다. 1차적으로 ‘경적(經籍)’, ‘서법(書法)’, ‘비각(碑刻)’, ‘그림[畫]’, ‘본국시(本國詩)’, ‘중국시(中國詩)’, ‘본국문(本國文)’, ‘중국문(中國文)’, ‘잡철(雜綴)’ 등 총 9개 부류로 나누고, 이 9개 부류 아래에 또 여러 유목을 설정하였는데 유목을 두지 않은 부류도 있다. 그리고 ‘사부분류법’을 3차적인 분류 층위인 자목에서 적용하였다. 즉 유목인 ‘본국서목’과 ‘중국서목’에 수록된 서적들을 ‘사부분류법’에 따라 ‘경사자집’으로 나누었던 것이다.

『해동역사』 『예문지』의 분류 체계는 ‘부류>유목>자목’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예문지의 분류체계를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9) 『해동역사』 『예문지』에 관한 연구는 김려화, 앞의 논문.에서 논의한 바 있다. 본고에서 논한 『해동역사』 『예문지』에 관련 일부 내용들은 이를 참조한 것을 밝힌다.

1단계 분류에는 9개 부류를 설정하였고 2단계 분류에는 총 38개 유목을 두었는데 모두 ‘사부분류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전통적인 예문지에서 ‘사부분류법’을 1차 분류 층위에 적용한 것에 비하면 『해동역사』 『예문지』의 분류 체계는 ‘파격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¹⁰⁾

『동국통지』는 원래 『산천가숙동국통지(山泉家塾東國通志)』로 명명하였는데 후대에 와서 이를 ‘동국통지’라는 약칭으로 불렀다. 박주종이 56세 되던 1868년에 『동국통지』를 편찬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한서(漢書)』의 십지(十志)를 참조하여 분류하였지만 학교(學校), 선거(選舉), 백관(百官), 여복(輿服) 등 사지(四志)를 추가하여 십사지(十四志)¹¹⁾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24권 17책으로 단군(檀君)부터 조선왕조 순조(純祖)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현재 필사본의 영인본이 전해지고 있다.¹²⁾

『동국통지』 『예문지』는 전체에서 2권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예문지 역시 전통 예문지의 ‘사부분류법’을 따르지 않고 대신 1차 분류에서 22개 부류를 두었다. 22개 부류를 둔 다음에 대개 시대별로 유목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편찬 시대가 분명하지 않은 작품이나 문헌에 대해서는 시대 정보를 밝힐 수 없어서 세부 유목에 두지 않고 단지 해당하는 부류에만 수록하였다. 그 구체적인 분류 상황을 ‘부류>유목’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部類> 類目)

經籍類> 新羅, 高麗, 朝鮮, 儒家類> 高麗, 朝鮮, 日本;

史家類> 新羅, 高句麗, 百濟, 高麗, 朝鮮, 華史記述類> 高麗, 朝鮮;

文編類> 古朝鮮, 新羅, 高麗, 朝鮮, 御製文編類> 古朝鮮, 新羅, 高句麗, 百濟, 高麗, 朝鮮;

詩歌類> 古朝鮮, 新羅, 高句麗, 高麗, 朝鮮, 表賦類> 朝鮮, 字書類> 朝鮮;

10) 김려화, 앞의 논문에서 『해동역사』 『예문지』의 분류 체계를 편찬자 한치윤의 창안으로 보고 이를 ‘독특한 분류 체계’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 체계를 이 책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래 『동국통지』 『예문지』와 『동국십지』 『예문지』의 분류체계와 비교하면 『해동역사』 『예문지』의 분류체계는 전통 예문지의 분류체계와 구별되는 ‘독특한 면모’에 그치지 않고 ‘파격적인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 한국의 역사를 14개의 지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4지는 천문, 오행, 지리, 제사, 예악, 병위, 형법, 식화, 예문, 학교, 선거, 백관, 여복, 율력 등으로 『漢書』, 『高麗史』 등 紀傳體 역사서의 형식을 따랐다.

12) 1983년에 태학사에서 개인이 소장한 필사본을 영인하여 상·하 두 권으로 간행하였다.

雜纂類> 新羅, 高麗, 典章類> 新羅, 高麗, 朝鮮, 象緯類> 高麗, 朝鮮,
輿地類> 新羅, 高句麗, 朝鮮, 農家類> 高麗, 朝鮮, 兵家類> 新羅, 高麗, 朝鮮,
醫家類> 新羅, 高麗, 朝鮮, 卜筮家類> (없음), 譯家類> (없음);
陰陽家類> 新羅, 高麗, 釋家類> 新羅, 高麗, 朝鮮, 文集類> 新羅, 高麗, 朝鮮.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 예문지에서 3단계 기본 분류 층위를 설정하는 것과 달리 『동국통지』 「예문지」에는 2단계 분류 층위만 설정하였다. 『해동역사』 「예문지」와 마찬가지로 『동국통지』 「예문지」도 ‘사부분류법’을 가장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동국통지』의 ‘십사지’가 『한서』의 ‘십지’를 바탕으로 그것을 개수(改修)했던 것처럼 그 「예문지」의 분류도 여러 경전을 참고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 분류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문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¹³⁾ 우선 본고에서는 19세기 사찬사서인 『동국통지』의 예문지는 전통 예문지와 매우 다른 분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그 분류 체계는 전대 경전의 분류 체계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개수된 분류 체계로 보도록 하겠다.

예문지가 들어 있는 또 다른 19세기의 사찬사서는 바로 『동국십지』이다. 『동국십지』는 배상현이 1855년에 칩거하던 중에 『한서』 ‘십지’를 모방하여 편찬하기 시작한 역사서이다. 『한서』의 ‘십지’를 참조했다는 점이 박주종의 『동국통지』와 상통한다. 그리고 사실 이 두 사람은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¹⁴⁾ 그러나 『해동역사』와 『동국통지』에 비해 『동국십지』의 분량은 비교적 소략한 편이다. 3권 3책으로 구성된 이 책은 권3에 「예문지」를 수록

13) 민태희는 앞의 논문에서 『동국통지』 「예문지」의 분류체제가 馬端臨(1254~1323)의 『文獻通考』 「藝文考」와 李萬運(1736~1820)의 『增訂文獻備考』 「藝文考」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동국통지』 「예문지」의 부류 항목을 각각 『문헌통고』 「예문고」와 『증정문헌비고』 「예문고」와 비교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통해 『동국통지』 「예문지」의 분류체제가 이 두 가지 문헌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관점을 밝혔다. 사실 『동국통지』 「예문지」와 『문헌통고』 「예문고」의 분류체제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만운의 『정증문헌비고』의 편성 시기(1790~1796)가 『동국통지』보다 훨씬 앞서고 또 두 책의 분류체제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후자가 전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추측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기록을 찾아내야 그 영향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동국통지』 「예문지」의 분류체계에 영향을 끼쳤던 문헌에 대해 상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14) 진나영·송일기, 앞의 논문, 110면.

하였다. 분량이 많지 않은 『동국십지』 『예문지』의 분류체계도 1차적 분류에만 그쳐 3단계 분류체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국십지』 『예문지』에서는 조선의 서적을 역리(易理), 시(詩), 예악(禮樂), 춘추(春秋), 논어(論語), 효경(孝經), 소학(小學), 시부(詩賦), 소설가(小說家), 유가(儒家), 농가(農家), 병가(兵家), 음양가(陰陽家), 복서가(卜筮家), 의방가(醫方家)로 나누어 해당 서목을 기록하였다. 1차적 분류에만 그친 이 예문지에 수록한 서목의 수량도 앞서 살펴봤던 두 가지 예문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해동역사』 『예문지』에는 868종의 자료를 수록하였고 『동국통지』 『예문지』에는 2161종 서목을 수록하였는데 『동국십지』 『예문지』에는 137종 서목만 수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십지』 『예문지』는 나름의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19세기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전통적인 예문지와 매우 다른 분류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예문지는 한 시대의 문화사 내지 학술사를 정리하는 역사서의 체제를 반영한다. 예문지의 학술적 가치는 “학술을 변별하고 원류를 고증하여 밝히(辨章學術, 考鏡源流)”는 데 있다. 이러한 학술적 가치를 최대화한 정보 분류체계는 바로 송대(宋代)부터 전해온 경사자집 ‘사부분류법’으로 구축한 분류체계이다. 그리고 ‘사부분류법’에 따라 서적을 1차적으로 수록하는 것도 예문지 편찬의 관례가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의 분류 체계는 ‘사부분류법’을 엄격히 따르지는 않았다.

『해동역사』 『예문지』는 독특한 분류체계를 구축하였고 『동국통지』 『예문지』는 개수된 분류체계를 채택하였으며 『동국십지』 『예문지』 역시 개수된 분류체계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은 19세기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의 특징적인 서술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이를 ‘새로운 분류체계’로 규정하기로 한다.

새로운 예문지 분류체계가 19세기 사찬사서에서 나타난 원인은 우선 17세부터 조선에서 유행했던 유사(類書) 편찬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지식의 팽창을 반영하는 유서는 박학(博學)을 지향하는데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 가운데서 ‘박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유사 편찬도 일부 지식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적 활동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출된 유서 가운데는 서목 성격을 띠는 내용을 수록한 것도 있다.

일례로 잘 알려진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芝峯類說)』은 25부문(部門) 182항목으로 3435조목을 수록하였는데 모든 조목의 추출을 서목 형식으로 밝혔다. 게다가 ‘경서(經書)’ 부문을 설정하여 경서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록하였다. 또한 이익(李瀾,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은 천지문(天地門), 만물문(萬物門), 인사문(人事門), 경사문(經史門), 시문문(詩文門)의 다섯 가지 ‘문(門)’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이 중 ‘경사문’에는 육경(六經)과 사서(四書)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잘못 해석된 내용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정리한 것인데 총 1048개 항목이 실려 있다. 이 자료의 성격도 서목과 거리가 있지만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측면에서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계시를 준 바가 있다. 따라서 유서의 다양한 분류형식은 분명 조선 후기 예문지 편찬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밖에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편서잡고(編書雜稿)』에도 문헌을 정리하고 서목을 수록하는 내용들이 많이 확인된다. 이러한 자료들도 예문지처럼 문화사를 정리하려는 편찬 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록한 내용을 대략 살펴보아도 훗날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의 수록 내용과 같은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자료들이 조선 후기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의 초기 형태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시문(詩文)의 수록과 편찬목적

전통적인 예문지와 비교할 때 19세기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시문을 수록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예문지에서는 시문을 수록하지 않은 것과 달리 『해동역사』, 『예문지』, 『동국통지』, 『예문지』, 『동국십지』, 『예문지』에는 한시, 시가 그리고 산문을 상당히 많이 수록하였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동역사』, 『예문지』에는 서목을 수록한 외에 또한 한시 563수와 외고 문서 166편을 수록하였다.¹⁵⁾ 시문을 수록하기 위해 편찬자는 ‘본국시’, ‘중

15) 김려화, 앞의 논문, 56면.

국시, '본국문', '중국문' 네 가지 부류를 설정하였다. '본국시' 부류에는 '기자조선, 고구려, 신라, 고려, 본조(本朝)와 같은 다섯 유목으로 나누어 총 138인의 300제(題) 342수의 한시작품을 수록하였다. 서목을 수록한 부분과 달리 한시를 수록한 부분에는 해당 한시 작품의 전문(全文)도 실렸다. '본국시'에 실린 한시 작품은 기자(箕子)의 『맥수가(麥秀歌)』로 시작하여 조선의 어느 기생의 『화장을 씻은 물을 읊다(詠洗粧水)』로 끝난다. '중국시'에는 주로 증별시(贈別詩), 기사시(記事詩), 제영시(題詠詩)를 수록하였다. '중국시'라고 하지만 사실 모두 조선에 관련된 한시작품들이다.

『해동역사』 『예문지』에 실린 외교문서는 '본국문'과 '중국문'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본국문'부 류에는 '사대하는 표와 소(事大表疏)', '이웃 나라에 준 국서(與隣國書)', '첩문(牒)', '장문(狀)', '정문(呈文)', '편지(書)', '기문(記)', '서문(序)', '비명(銘)' 등 9개 유목으로 총 36편 외교문서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중국문' 부류에는 '조(詔)', '제(制)', '칙(勅)', '표(表)', '소(疏)', '장(狀)', '답(劄)', '의(議)', '주(奏)', '계(啓)', '논(論)', '송(頌)', '서(序)', '기(記)', '명(銘)', '봉사록(奉使錄)',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려를 정벌하는 조서(隋唐征高麗詔)' 등 17개 유목으로 총 130편 외교문서를 수록하였다. 여기에 수록한 외교문서도 제목뿐만 아니라 전문까지 모두 실렸다.

『동국통지』 『예문지』의 '시가류(詩歌類)'와 '어제시가류(御製詩歌類)' 두 부류에는 시가작품의 제목을 일반적인 서목을 수록하는 형식에 따라 기록하였다. '시가류'에는 29종 시문을 수록한 다음에 『서경곡(西京曲)』, 『대동강곡(大同江曲)』, 『도솔가(兜率歌)』를 비롯한 36수 가곡 작품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어제시가류'에는 49종 서목을 수록하였다고 하지만¹⁶⁾ 사실 이 가운데 서목이 아닌 작품명을 수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기자의 작품으로 알려진 『맥수가』와 『기자단가(箕子短歌)』, 진덕여왕(眞德女王)의 『태평송(太平頌)』, 유리왕(琉璃王)의 『황조가(黃鳥歌)』, 눌지왕(訥祗王)의 『신라우식곡(新羅憂息曲)』, 조선 문종(文宗)의 『기몽기(記夢記)』 등 약 50종에 이르는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동국십지』 『예문지』의 '시류(詩類)'에는 『동문선(東文選)』 같은 시선집도 수록하였지만 그밖에 한시 작품을 조목(條目) 별로 수록하였다. 을지문덕(乙

16) 민태희, 앞의 논문, 551면.

支文德)의 오언시(五言詩), 최치원(崔致遠)이 당나라에서 지은 「격문(檄文)」,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三國史)』¹⁷⁾, 이규보(李奎報)의 「위심시(違心詩)」, 이제현(李齊賢)의 「사호귀한시(四皓歸漢詩)」와 「범려시(范蠡詩)」, 최해(崔澗)의 「예산은자전(倪山隱者傳)」, 이색(李穡)의 「봉황화시(葑黃花詩)」, 이승인(李崇仁)의 「계장시(揭幃詩)」, 정몽주(鄭夢周)의 「북관시(北關詩)」, 허난설현(許蘭雪軒)의 시와 글 등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예문지에 수록된 시문의 제목만 비교하더라도 그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해동역사』는 한치운이 중국과 일본 서적에 실린 조선과 관련된 내용을 채록하여 편찬한 역사서이다. 따라서 이 책의 예문지에 기록된 내용들도 원래는 중국과 일본 문헌에 있었던 기록들이다. 한시와 외교문서의 경우 역시 외국문헌에서 채록한 것이다. 즉 『해동역사』 「예문지」에 실린 한시작품과 외교문서는 모두 중국과 일본 문헌에 수록된 것이므로 이들 한시와 외교문서는 사실 외국에 알려진 조선의 시문들이다. 『동국통지』 「예문지」와 『동국십지』 「예문지」는 산문을 많이 수록하지 않고 한시작품을 비교적 많이 수록하였다. 이 두 예문지에 수록한 한시작품에는 비록 중복된 작품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작품은 다른 것이다. 박주종과 배상현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한시작품들을 선택하여 예문지에 수록하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문제를 밝히려면 두 예문지에 실린 한시작품들에 대해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본고에서는 우선 이 세 가지 예문지에서 시문을 수록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예문지는 시문을 수록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19세기 조선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는 모두 한시나 시가작품을 수록하였다. 특히 『해동역사』 「예문지」의 경우 한시만 수록한 것이 아니라 무려 다섯 권의 분량으로 166편에 이르는 외교문서까지 수록하였다. 예문지에 외교문서를 수록했다는 것은 편찬자가 이러한 자료들의 정치·외교적 측면의 자료로서의 성격에 주목하고 그것의 문화 교류적인 의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동국십지』 「예문지」의 서문에서 저자는 전란을 비롯한 재앙으로 인해 본국에 현존하는 서적이 많지 않으며, 특히 징거(徵據)가 될 만한 문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17) 김부식의 『삼국사』가 史書에 속하지만 『동국십지』에서는 이를 '시' 부류에 수록한 것은 단순히 오류로 보기에 무리하고 편찬자가 『삼국사』에 수록한 시 작품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탄식한 바 있다.¹⁸⁾ 그러므로 예문지에 시문까지 수록한 것은 우선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수록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문지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문을 예문지에 수록한 것이다.

한편 시문을 예문지에 수록한 선례는 명나라 때 편찬된 방지(方志)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⁹⁾ 시문 수록을 통해 방지예문지(方志藝文志)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게 해당 지역의 문화역사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 따라서 예문지에 시문을 수록하는 편찬행위를 지역 문화사 사업을 융성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19세기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에 시문이 등장한 이유에 대해 중국 방지와외의 영향관계 측면에서 추측할 수도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아 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 방지예문지의 편찬목적으로부터 조선 예문지에 시문이 실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문화사 서술을 풍부하게 하려는 편찬목적 때문에 시문을 예문지에 수록했을 것이다.

『해동역사』 「예문지」에 시문을 수록한 것이 적절한지 그 독창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논한 바가 있다.²⁰⁾ 『동국통지』 「예문지」와 『동국십지』 「예문지」에 시문을 수록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해동역사』 「예문지」와 『동국십지』 「예문지」에 비하여 『동국통지』 「예문지」의 편찬지는 한시보다 가곡에 더 관심을 보였다. 가곡은 조선 특유의 시가 문학형식이다. 『동국통지』 「예문지」에 이러한 작품들을 수록했다는 것은 편찬자가 자국의 특유한 문학 양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다 같이 시문을 수록했지만 이 세 가지 예문지에는 또 다른 차이점도 확인된다. 『해동역사』 「예문지」는 시문 제목만

18) “東方文獻始自中國，故今閭巷之韋布，皆能誦說中朝典憲，而不得見本國書籍者多矣……李牧隱曰：東明王以前無籍可徵。今之欲考古者無惑乎？文獻之不足也。且蘇定方，甄萱之兩大厄會無減於贏項之虐焰，東方書籍蕩殘無餘，可勝歎哉。” 배상현, 『동국십지』 「예문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9) 명나라 만력 연간에 편찬된 『嘉定縣志』에는 ‘文苑考’ 부류를 설정하여 산문 50편과 한시 127수를 수록하였다. 또한 청나라 강희 연간에 편찬된 『南海縣志』는 ‘예문’ 부류를 두고 거기에 기문, 賦, 한시, 奏疏, 碑記 등 시문작품을 수록하였다. (馬春暉, 『中國傳統方志藝文志研究』,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15, 137면)

20) 김려화, 앞의 논문, 56~60면.

수록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담은 정문까지 수록하였다. 그러나 『동국통지』 「예문지」와 『동국집지』 「예문지」는 한시와 시가 작품의 제목만 수록하였고 정문을 수록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은 편찬자들이 시문 자료의 보존 방법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사실 예문지에 시문을 수록하는 행위에 대해 전문 학자들도 견해가 엇갈렸다.²¹⁾ 이러한 편찬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예문지에 수록된 시문 작품이 문학적 가치나 사료적 가치가 없으면 예문지 내지 해당 사서에 범람(汎濫)하는 병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반면 수록된 시문의 사료적 가치가 높으면 역사사실의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문지 편성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즉 예문지에 시문을 수록하게 되면 역사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시문 자체의 문학적, 사료적 가치가 예문지에서의 수록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적 요소가 된다.

본고에서 다룬 세 가지 19세기 예문지에 수록된 시문들이 가치가 있음은 분명하다. 『해동역사』 「예문지」에 수록한 한시와 외교문서는 중국과 일본까지 알려진 조선의 글들이다. 『동국통지』 「예문지」와 『동국집지』 「예문지」에 수록된 시가들도 모두 조선의 문학사 내지 역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 작품들이다. 즉 이 세 가지 예문지에 수록된 시문은 충분한 문학적 가치와 사료적 가치를 갖추었다. 따라서 이들을 예문지에 수록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시문 수록을 통해 편찬자들이 문학을 중시하여 ‘시와 문장으로 역사서술을 보충하려고(以詩文補史)’ 한 편찬의식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한편, 시문을 예문지에 수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문헌적 배경으로는 역시 유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분류체계의 특징을 논의한 부분에서 『지봉유설』과 『성호사설』을 예로 들어 유서의 영향을 언급한 바 있다. 사실 이 두 가지 유서에도 역시 적지 않은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21) 이 문제에 대해 청대 사학자 겸 목록학자인 장학성(章學誠 1738~1801)의 논설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는 일찍이 예문지에 문학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는 시문을 수록하는 병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와 동시에 장학성은 예문지에 시문을 수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성의 저술인 『文史通義』 권8 「外篇」 3에 실린 「答與甄秀才論修志第一書」와 「天門縣志藝文考序」를 참고할 수 있다.

『지봉유설』의 권8부터 권14까지는 ‘문장부(文章部)’에 해당된다. 여기에 중국과 조선의 역대 한시를 뽑아 어제시, 고악부(古樂府), 고시(古詩), 당시(唐詩), 오대시(五代詩), 송시(宋詩), 원시(元詩), 명시(明詩), 동시(東詩), 방류시(旁流詩), 규수시(閨秀詩), 창첩시(娼妾詩), 가사(歌詞), 여정(麗情), 애사(哀詞), 창화(唱和), 대구(對句), 시화(詩禍), 시참(詩讖), 시예(詩藝) 등 유형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편찬자의 다양한 문학적 비평도 함께 실었다. 『성호사설』의 경우는 ‘시문문(詩文門)’을 설정하여 시와 문장을 전편이나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저자의 비평을 실었다. 이처럼 문학작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유서에서도 확인되며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사찬사서 편찬에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본고에서 다룬 19세기 사찬사서는 모두 예문지를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문지 자체가 전서(全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교적 큰 편이다. 예문지의 분량이 너무 많은 것은 해당 저술들의 사서로서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 그러나 예문지 편찬에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은 역사적인 차원에서 자국의 문화를 정리하려는 목적에서 기인하였으므로 긍정적인 의미가 더 크다. 이는 또한 자국의 정치역사를 문화역사보다 우선시했던 전통적인 역사서술 관점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다.

IV. 자주적인 동인(東人)의 역사 편찬의식

앞에서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19세기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의 기술 특징을 포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예문지와 구별되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시문을 수록했다는 점이 곧 이들 예문지의 특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밝히는 과정에서 19세기 사찬사서 편찬자들 특유한 역사서술 의식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전통적인 예문지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또 전통적인 예문지에서 수록하지 않는 시문을 수록했다는 것은 자국의 역사를 자주적(自主的)이고 체계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간주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조선의 사상계는 점차 ‘경사일치(經史一致)’의 인식에서 벗

어나 역사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 이미 선행연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²²⁾ 특히 이 시기의 많은 지식인들이 자국의 역사서술을 시도하고 또한 그 역사서술에 독자성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그전까지 조선의 역사서술은 대개 중국 역사서의 사관(史觀)에 의존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조선의 사대부들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통달하면서도 자국의 것은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조선후기의 일부 지식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모화(慕華)사상에서 비롯된 병폐로 생각했다. ‘명칭 교체’와 같은 역사사건이 가져다 준 사상적 충격과도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이 시기의 조선 지식인들은 역사서술을 통해 자국의 역사를 알리고 자국 문물의 성대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사학자 이종휘(李鍾徽, 1731~1797)가 쓴 『고구려예문지(高勾麗藝文志)』를 통해 이러한 편찬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종휘는 이 글에서 먼저 중국 전국(戰國)과 진한(秦漢) 시대 문인들의 글이 괴상하고 기벽(奇僻)하지만 그들의 책이 전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도 현세까지 전해졌다고 감탄하였다.²³⁾ 이어서 고대 중국 예문지에 수록한 책을 헤아리면서 조선에 전해진 책이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²⁴⁾ 그리고 현세에 전해진 몇몇 안 되는 고구려의 책과 문장을 나열하였는데²⁵⁾ 그 뒤를 이어 다음과 같은 서술을 하고 있었다.

22) 정재훈, 『조선후기 사서에 나타난 중화주의와 민족주의』, 『한국실학연구』 제8집, 2004, 302면.

23) 古者，聖賢得位而在于上，則功業施於當世。而言語文章載之簡策，而傳于百世。其不幸而不得施於當世者，又必爲文字以期之于身後。則其爲言愈多，而其爲心亦苦矣。自六經四書，以至於諸子百家，其書充棟而衍字，然其傳諸後世，可以弊天壤而不亡者。六經四書之外，先秦西漢荀·揚·馬·班以下，蓋亦無幾焉。其餘薦紳君子，或列其道術，或鳴其文章，咸涉於六藝之末流。而數世之後，凋零磨滅而不可見者，又不可勝數焉。文字之不足恃也，蓋如此。雖然六國崩離之際，秦漢之世土之怪迂奇僻，而其言離於道者，亦或往往而傳其名。則亦有幸不幸於其間歟？（『修身集』卷之十二，『東史志』，『高勾麗藝文志』）

24) 古者藝文，班固以來爲史者，蓋莫不有其志。而漢之所莊爲萬三千二百六十九卷，唐則萬二千三百八十四卷，蓋世愈下而其道愈晦。然亦可以見中國文章之盛矣。嗚呼！東方自檀箕以後，文獻無傳。然箕箒之來，百工技藝醫藥卜筮之書，亦隨以東，則況於先王之典章，虞夏之載籍乎？（앞의 책）

25) 勾麗之興，閭巷里落，莫不有學。其學士大夫日遊學於中國，而中國書籍已與之日東。而魏晉之間歷代賜書，又復相繼而至。秘府所積，蓋亦多矣。然因其遺史可考於今者，有『留記』百卷，李文貞『校正』五卷，及乙支文德遺于仲文詩四句，與夫唐所賜老子『道德』上下經而已。（앞의 책）

그(고구려)가 강성했던 시기에 학사들이 상국(上國)의 손님으로 있었고 제자들이 향숙(鄉塾)에서 강학(講學)을 하였다. 문물과 예악(禮樂)은 활쓰기에 능하고 싸움에 강했던 일보다 불만하였다. 당시의 학자 중에 필시 옛 성현의 불후함을 사모하여 평생의 힘을 다해 부지런히 문장에만 전념하는 자가 있었을 것이다.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유작을 보면 그러한 상황을 추측하여 알아낼 수 있다. 그러한 학자들이 육국(六國)의 선비나 진(秦)나라, 한(漢)나라의 못난 선비들처럼 이름을 후세에 전하지 못한 것이 어찌 하국(下國)으로서 궁벽하고 비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참으로 불행하다... 오호라! 역대의 성쇠에 문장이 시대와 고하(高下)를 함께 하는데 그 시대의 치란과 흥망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문지이니 이는 결국 없어서는 안 된다. 지금 사가(史家)와 시가(詩家) 두 종류로 나누어 이 뒤에 첨부한 것으로 그것을 보존하고자 한다.²⁶⁾

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종휘는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재인식, 재평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고구려 문사들의 문장이 중국 진한(秦漢) 때의 제자백가처럼 전해지지 못한 사실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쉬움’은 조선의 문화역사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에서 출발한 것이며 또한 그가 『고구려예문지』라는 글을 작성하게 했던 계기기도 하다. 이처럼 자국 문화 역사를 다시 정리하여 그것을 재인식, 재평가하려는 작업은 수많은 조선후기 지식인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한치윤, 박주종, 배상현이 바로 이러한 지식인에 속한다. 이들은 자국 문화역사의 성대함을 밝히기 위해 자주적인 역사서술 정신에 근거하여 중국의 문물제도에서도 탈피하여 그것과 구분되는 역사서술 방식을 만들어야 했다.

한치윤의 『해동역사』 『예문지』에서 확인된 파격적인 분류체계가 바로 이러한 저술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 파격적인 분류체계가 나타난 원인은 자주적인 역사서술 동기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자국 역사서술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시기의 사서 편찬자들의 중요한 저술의식으로 되었던 시대적 배경은 무시할 수 없다. 박주종의 『동국통지』 『예문지』와 배상

26) 方其盛時，學士賓于上國，子弟講於鄉塾。文物禮樂，綽有可觀於引弓強戰之外。當時學者，其必有慕古聖賢之不朽，而勤一世以盡心於文字間者。雖以文德遺詩觀之，可推而知也。其不能與六國賤士·秦漢末儒垂聲而不朽，豈不以下國僻陋，無得以久傳歟？其亦不幸之甚也...嗚呼！歷代盛衰，文章與時高下，其治亂污隆，可按而知，則藝文志者，固不可闕也。今分史家詩家二類，附于後，以存其體焉。(앞의 책)

현의 『동국십지』 「예문지」의 분류체계는 『해동역사』 「예문지」처럼 전통적인 예문지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지 못하였지만 전통적 분류방식을 엄수하지 않고 나름 개수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편찬자들의 자주적인 역사서술의식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주적인 역사기록 정신으로 자국사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19세기 사찬사서의 편찬자들의 중국의 문물제도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자국의 문화사 서술에 중국의 것을 수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예문지의 경우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목을 수록하는 예문지의 해당 부분에서 조선의 저술만 수록하지 않고 조선에 유입된 중국 서적에 대해서도 최대한 수집하여 기록하였던 것이다.

『해동역사』 「예문지」는 ‘경적’ 부류 아래 ‘중국서목’이라는 유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중국 서적을 145종 이상을 수록하였다. 이 유목에 수록한 중국 서적들은 선진시대부터 청나라 초기까지의 문헌을 망라한 것인데 조선에 유입된 중국 서적이 대부분이지만 중국이나 일본으로 ‘역수출’한, 조선에서 보유한 중국서책도 있었다. 그리고 ‘동국기사(東國記事)’ 자목에는 중국에서 편찬된 조선에 관한 전문서(專著)를 모았다. 『동국통지』 「예문지」의 각 부류에는 비록 조선의 역사흐름에 따라 시대별로 서목을 분류하여 수록했지만 그때그때 조선에 유입된 중국 서적도 함께 수록하였다. 일례로 조선 세종(世宗) 2년(1420)에 집현전(集賢殿)을 설립하면서 명나라로부터 인입한 서적으로는 『위선음졸(爲善陰鷲)』, 『오경사전대전(五經四書大全)』, 『성리대전(性理大全)』, 『음주자치통감(音註資治通鑑)』, 『송사(宋史)』, 『송원절요(宋元節要)』 등이 있는데 이를 모두 예문지의 서목으로 기록하였다. 『동국십지』 「예문지」도 『동국통지』 「예문지」처럼 중국서적에 대해 별도로 부류나 유목을 설정하지 않고 그저 부류에 따라 관련된 중국서적을 조선서적과 함께 서목으로 수록하였다. 예를 들어 ‘춘추류(春秋類)’에는 고려 때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공부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 책을 서목으로 기록하였다.

비록 자국사의 독립성을 추구하였지만 중국 문물과의 깊은 연원으로 조선의 예문지에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빠질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편찬자들은 중국 서적을 독립된 항목으로 수록하거나 자연스럽게 조선의 서적과 함께 기록하였다. 그 결과, 조선후기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는 문화교류사를 기록하

는 역사서술이 되었다. 편찬자들이 문화교류사를 중시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도 크겠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화교류사가 탄생하는 원인에, 주관적 편찬 동기에 비하여 객관적 역사사실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하고자 한다. 한편 이 세 역사서를 ‘해동(海東)’ 아니면 ‘동국(東國)’으로 명명했다는 점으로부터 이들 편찬자들 역시 전대로부터 전해온 ‘동인(東人)’ 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사찬사서에 대한 연구에 있어 편찬자가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개인의 힘으로 편찬된 역사서는 한계도 있지만 그 장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때문에 사찬사서도 관찬사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지(志)’는 ‘기록’의 의미로 원래 관찬사서의 기술 양식 중의 하나이다. 한치윤, 박주중, 배주현이 ‘지’라는 역사 기술 양식을 선택하여 문화사를 편찬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 사찬사서에서는 ‘예문지’ 형식을 선택하여 서목을 비롯한 문헌자료를 수록했을까? 사실 조선시대에 편찬된 목록서는 나름 풍부한 셈이다.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 『규장총목(奎章總目)』, 『홍문관서목(弘文館書目)』, 『용문루서목(隆文樓書目)』, 『증정문헌비고』 『예문고』 등 목록서는 관찬서목으로 잘 알려져 있고 개인의 목록 자료도 풍부한 양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목 자료들을 통해 조선의 역대 도서의 소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서목’으로 명명한 자료와 ‘예문지’로 명명한 자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사서술인지 아닌지’에 있다고 생각된다. 즉 공신력, 신빙성과 직결된 문제이다.

예문지에 비하여 서목의 편찬 목적은 단순한 면이 없지 않다. 서적 자료를 일정한 범주에 따라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이 서목이다. 그러나 예문지는 ‘사지(史志)’ 중의 한 가지 형식으로서 역사 기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문지에 기록된 일련의 서목들은 곧 한 시대의 문화 역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 편찬은 편찬자가 자국의 문화 역사를 정리하여 그것을 확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작업이기도 하다. 편찬자는 예문지를 통해 자국의 문화를 역사기록 형태로 남기고 문화사를 역사학 속의 한 범주로 부각시키며 나아가 문화사를 독립성을 지닌 역사학의 한 가지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요컨대 19세기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는 편찬자가 자국의 문화 역사를 확립시키려는 결과물이다. 그들에게

있어 예문지는 조선문화의 역사이자 조선 역사의 문화였던 것이다.

한편 역사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인식하여 발전시켜왔던 조선 후기 사서 편찬자들은 구체적인 작업 과정에서 역사적 콘텐츠를 더욱 세분화하여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문지를 통해 문화사 서술을 시도하는 것도 그러한 인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하면 문화사를 중시하고 그것에 대해 역사서술을 시도한 것도 역사학 발전의 한 면모로 간주할 수 있다.

V. 결론

예문지의 편찬은 편찬자에게 지식정보에 박식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동시 편찬자에게 방대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치밀한 정보 분류체제를 구축하는 데 고심할 것도 요구한다. 또한 다뤄야 할 대상이 방대한 문헌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있어 예문지 편찬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조선의 사찬사서에서 예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치윤의 『해동역사』, 박주종의 『동국통지』, 배상현의 『동국십지』에 모두 예문지가 들어있다.

그러나 분류체제 측면에서 이들 예문지는 전통 예문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19세기의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들은 새로운 분류 체계에 따라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예문지는 한자문화권에서 편찬된 정사 예문지의 ‘사부분류법’을 따르지 않고 비교적 독특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항목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류상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된 원인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이 얽혀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본고에서는 우선 17세기부터 조선에서 성행했던 유서의 편찬에서 찾아보았다.

조선후기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에는 시문수록을 통해 1차적으로 예문지의 양(量)을 확장시켰으며 2차적으로 조선의 문화사 서술을 풍부하게 하였다. 이와 동시 수록된 시문작품의 문학적 가치와 사료적 가치의 위상도 높일 수 있었다. 편찬자들이 문학작품을 사서에 수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학작품의 사료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했다는 것

을 말하고 있다.

특별한 분류체계와 시문을 수록했다는 특징을 밝히는 과정에서 조선후기 사찬사서 편찬자들의 자주적인 역사서술의식도 포착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사찬사서의 편찬자들이 자주적인 역사 기록을 통해 자국사의 독립성을 추구하려면 자국의 문화사 서술에 중국의 문물제도를 수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본고에서 고찰한 예문지에는 서목을 수록하는 부분에서 조선의 서적만 수록하지 않고 조선에 유입된 중국 서적에 대해서도 최대한 수집하여 기록하였다. 그 결과 이들 예문지는 문화교류사를 기록하는 역사 서술의 성격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었다.

개괄적인 시론으로 소략하게 작성된 글이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위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조선후기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의 특징으로 밝혔으나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게 된 원인에 대해 앞으로 사상사, 문헌학, 역사학 등 측면에서 더 깊이 천착하여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들 예문지 간의 구체적인 비교, 또 중국 지방지예문지와의 비교를 통해 19세기 조선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의 편찬 특징과 형성 원인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예문지가 『규장총목』을 비롯한 관찬 목록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사찬사서에 수록된 서목은 어디에 소장된 서적을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조선시대 사찬사서 속의 예문지 서목, 관찬 목록서, 개인이 작성한 목록서에 대한 범주 별 연구를 진행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비교연구와 통시적 연구가 진행되면 조선시대 목록학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 끊임없이 논증을 시도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자료

- 李肯翊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역, 『국역 연려실기술』, 『고전국역총서』 1~11, 민족문화추진회, 1966.
- 李德懋, 『靑莊館全書』, 민족문화추진회, 1986.
- 李晬光, 『芝峯類說』, 민족문화추진회, 2001.
- 李瀾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역, 『국역 성호사설』, 『고전국역총서』 107~116, 민족문화추진회, 1978.
- 朴周鍾, 『東國通志』, 태학사, 1986.
- 裴象鉉, 『東國十志』,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章學誠 저, 葉瑛 교주, 『文史通義校注』, 中華書局, 2004.
- 鄭樵, 『通志』, 清文淵閣四庫全書本.

2. 단행본

- 馬春暉, 『中國傳統方志藝文志研究』,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15.
- 한영우, 『朝鮮後期史學史研究』, 一志社, 1989.

3. 논문

- 김려화, 『『해동역사』 『예문지』의 문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민태희, 『『동국통지』 예문지 연구』, 『서지학연구』 제5·6집, 한국서지학회, 1996, 525~565면.
- 박인호, 『『동국십지』와 『동국통지』에 대한 연구: 사학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청계사학』 제9집, 청계사학회, 1992, 191~229면.
- 정재훈, 『조선후기 사서에 나타난 중화주의와 민족주의』, 『한국실학연구』 제8집, 한국실학연구, 2004, 299~323면.
- 진나영·송일기, 『『동국십지』 『예문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3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11, 107~140면.

The compilation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Yeamunji in 19th century Joseon

JIN, LI-HUA

The research object of this paper is the Yeamunji(藝文志) in private history book "Headongyeoksa(海東繹史)", "Dongkuktongji(東國通志)" and "Dongkuksipji(東國十志)" in 19th century Joseon. From the angle of compiling mode, this paper expounds the Compiling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se Yeamunjis.

Originally, Yeamunji had a certain standardized compilation mode in the traditional Chinese history books. However,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Yeamunji, the three Yeamunji compiled by Joseon in the 19th century showed a new look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se three Yeamunji s are as follows. There is a special classification system in "Headongyeoksa's Yeamunji", while "Dongkuktongji's Yeamunji" and "Dongkuksipji's Yeamunji" adopt a modified classification system. Such a classification can be seen as the general feature of Yeamunji in the 19th century Joseon private history books. Therefore, this paper defines it as a new classification system. In addition, the reason for the emergence of this new classification system can be found in the compilation of "Yuso(類書)" popular in the 17th century. In the 17th century, there were some bibliographic contents in the Yuso,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rudiments of "Yeamunji"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other important feature is that,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Yeamunji , these three 19th century Joseon Yeamunji contained a large number of Chinese poems and articles.

The purpose of collecting Chinese poems and articles in Yeamunji is to enrich the content of Yeamunji. In other words, in order to enrich the narrative content of cultural history, a large number of Chinese poems and articles are included in the Yeamunji. If a Yeamunji is famous for its rich content, it means that the culture of the era it records is very prosperous. Moreover, through the collection of Chinese

poems and articles, we can see that the compilers of historical books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 consciousness of literature compilation, and they had the concept of "supplement historical materials with Chinese poems and articles(以詩文補史)".

In fact, the fact that the new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the collection of Chinese poems and articles are the result of the fact that the historiographers wanted to know the history of their own country independently. Han chi-yun(韓致瀾), the compiler of "Headongyeoksa", Park joo-jong(朴周鍾), the compiler of "Dongkuktongji" and Bae Sang-hyun(裴象鉉) the compiler of "Dongkuksipji". All three of them hoped to narrate the cultural history of their country through the compilation of Yeamunji, and clarify that their culture had a long history and rich content. They tried to re understand and re evaluate the cultural history of Joseon. However, although they all had their own consciousness of historical compilation, and they all pursued independence in their respective historical narration, they still had limitations in getting rid of China's cultural relic system. Due to the far-reaching relationship between Joseon culture and history and Chinese cultural relics, Joseon's Yeamunji also included Chinese books. Although they recorded Chinese books as an independent project, they ended up juxtaposing them with Joseon books. As a result, the Yeamunji in Joseon had become a historical record of cultural exchange. Even so, in the 19th century, in the history books compiled by the Joseon private, Yeamunji had become an important record of Joseon's culture history.

keywords: *Headongyeoksa's* Yeamunji, *Dongkuktongji's* Yeamunji, *Dongkuksipji's* Yeamunji, classification system, collection of Chinese poems and articles, compiling consciousness

접수일자: 2019. 9. 30.
 심사기간: 2019. 10. 1.~2019. 11. 10.
 게재결정: 2019. 11. 10.